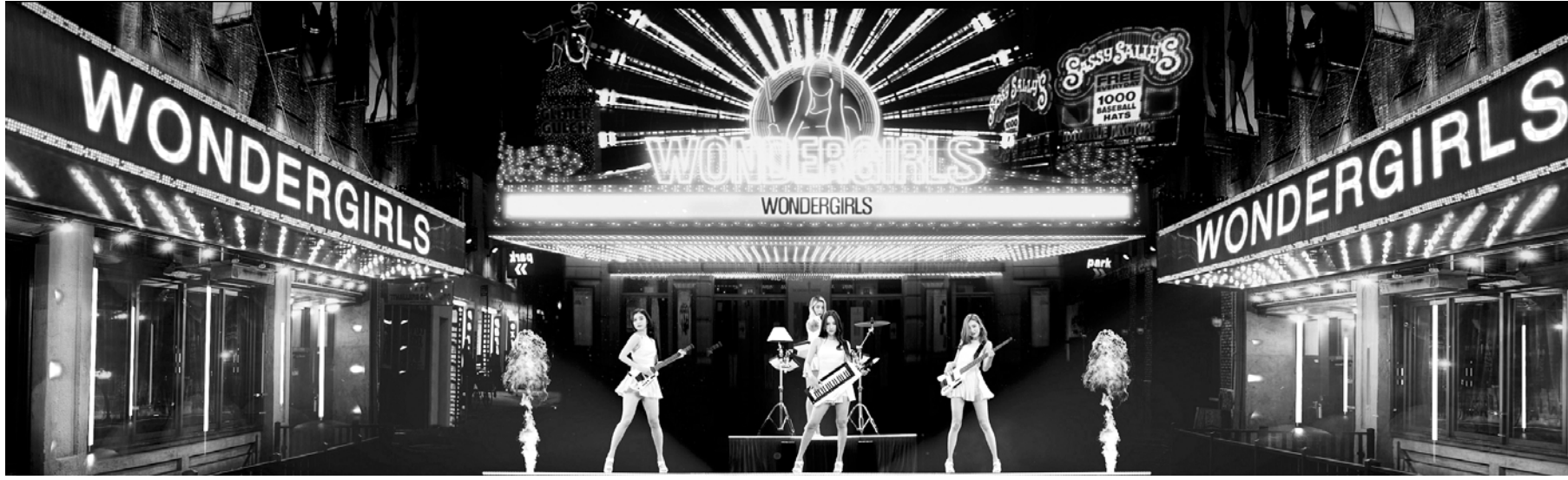


# 홀로그램 전용관에서 스타들을 만난다



KT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홀로그램 전용관 'K-live'는 싸이, 빅뱅 등 한류스타 콘서트를 3D영상으로 보여주며 인기를 끌고 있다. 입장 전 촬영을 한 관람객 얼굴이 화면에 등장하며 스타들과 같이 춤을 추는 등 손으로 잡힐 듯한 생생한 표현이 특징이다. 광주에서도 3D영상으로 스타들을 만날 수 있는 홀로그램 전용관이 생긴다.

6일 광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아트 관광레저 기반 구축사업'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17년 6월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일원에 홀로그램 전용관, 미디어 놀이터, 아카이브센터 등 미디어아트 관련 시설 6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KT에서 홀로그램 극장, 미디어 놀이터, 옥상 파사드 시공을 맡았으며 총 20억원(국비10·시비10억원)이 투입된다.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을 개조해 만드는 홀로그램 전용관은 100석 규모(360㎡)로 조성된다. 오는 11월까지 공사를 끝내고 12월부터 시범 가동에 들어

##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관광레저 기반구축사업' 발표 가로 8m·세로 5m '홀로그램 파사드' 전국 최초 설치 등 내년 6월까지 20억 투입 미디어아트 관련 시설 6곳 조성

간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아이돌그룹 '2PM', '원더걸스'가 등장하는 K팝 콘서트(20분 분량), 과학프로그램 '인체의 신비'(60분), '홀로그램의 탄생'(10분)이 상영된다. 정식 개관하는 2017년부터는 매년 공모전 등을 통해 재단이 자체 기획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트스페이스 2층에는 미디어아트 아카이브센터(92㎡)와 융복합전시실(187㎡)이 자리잡는다. 광주지역 미디어아트티스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가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간이다.

미디어아트 아카이브센터에는 KT가 무상 제공한 디지털 사이니지(공공장소에서 문자나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화면을 통해 보여주는 영상장치)가 설치될 예정

이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8개국 9개 도시)와의 화상회의가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된다. 융복합전시실에서는 오는 12월 광주 미디어아티스트 아카이브 특별전이 개관으로 열릴 계획이다.

빛고을문화관 1층 로비에 조성되는 미디어 놀이터(328㎡)는 어린이들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미디어아트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손을 휘두르면 화면 속 식물이 바람에 나부끼는 '미지의 공간', 공으로 곤충 영상을 맞추면 설명을 들려주는 '곤충 채집' 등으로 꾸며진다. 홀로그램 전용관과 마찬가지로 오는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정식 개관한다.

놀이터 옆에는 디지털 갤러리(225㎡)를 구축한다. 지역 미디어아티스트들이 작품

을 발표하는 공간이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해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고 놀이터 방문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작가 1명에게 소규모 전시공간을 약 6개월간 제공하는 한평갤러리도 구상 중이다.

빛고을문화관 옥상에는 전국 최초로 홀로그램 파사드(가로8·세로5m)가 설치된다. 투명한 실크스크린에 홀로그램 영상을 쏘 마치 허공에 사물이 떠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매일 밤 미디어아트 작품, 광주 소개 영상 등을 상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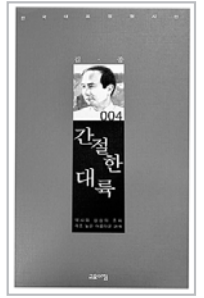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흥미를 유발하는 콘텐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머진 KT미래사업개발단 상무는 "꾸준히 관람객이 방문하기 위해서는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재가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기술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62-670-749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산과 달이 눈 맞추니 백두대간은 잔칫날...'

### 김중 시인 가사 시집 '간절한 대륙' 출간

가사문학은 한문이 교양의 척도이던 시절, 우리말을 통해 사상과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냈던 장르다. 시조와 대비되는 자유롭고 유장한 율문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시조의 형식에 스토리를 담은 노래였기 때문에 서민과 부녀자 등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모든 계층이 두루 창작할 수 있었다.



시적 세계를 풍부한 상상력으로 풀어냄으로써 시적 감흥을 선사한다. 그의 가사시는 두 장르가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 이야기와

김중 시인이 최근 가사 시집 '간절한 대륙'(고요아침)을 펴내 눈길을 끈다.

이번 작품집에서 시인은 역사와 자연을 넘나들며 웅담한 시적 상상력을 펼쳐 보인다. 무엇보다 잊혀져가고 있는 가사시를 누구나 쉽게 이야기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특히 이번 시집에는 지난 2014년 제1회 한국가사문학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백두대간 이야기'도 실려 있다. '백두대간이야기'는 자주 출신 백호 임제(1549~1587)를 서사적으로 끌어들이 형상화한 작품이다.

"몸 낮추고 내려가서 계단처럼 서 있자니/ 울려다본 하늘가에 산들이 달구경 왔다/ 산과 달이 눈 맞추니 백두대간은 잔칫날이다/ 깃발처럼 손 흔들 듯 이 산 저 산 세운 몸이/ 푸른 피 색 고운 세월을 포목처럼 걸쳤구나"

시인은 한 시대를 품어낸 문사의

구상, 리듬은 가사 영역이 담담하고 상징과 함축, 여운은 시 영역이 많아 다채로운 향연을 펼쳐낸다.

최한선 시인(전남도립대 교수)은 해설에서 "간절한 대륙"이 새로운 시심의 발현인 만큼 그에 따른 새로운 시형식의 시도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어쩔 수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시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시심에 따른 적합한 표현 도구의 사용은 시형식과 문학 이론으로 내공이 다져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했다.

한편 김중 시인은 1976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 이후 '장미원', '궁금한 서쪽' 등 10여 권의 시집을 펴냈다. 대한민국동양사예대전 초대작가로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제펜 한국본부 '펜문학' 편집인 및 간행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국제영화제 문제해결 나서라" 1인 시위



'광주국제영화제 문제 해결과 지역 영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 모란 테이블'은 6일 광주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광주시가 광주국제영화제 파행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에 시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되며 지역영화 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 광주민속박물관 '박물관과 함께하는 문화마당'

### 매달 첫째·셋째주 토요일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박물관과 함께하는 문화마당'을 8월20일까지 매달 첫째·셋째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민속공연, 대나무 공예체험, 상설전시실 관람으로 꾸며진다.

전통민속공연은 오후 5시30분부터 1시간동안 진행되며 회차마다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한다.

전통연희(7월16일·전통연희놀이연구회 강령탈춤), 퓨전국악(8월1일·퓨전국악남녀 혼성그룹 '려'), 용전들노

래(8월20일·들노래예술단 '노름노래') 공연이 이어진다.

대나무 공예체험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단소, 반지, 소망등, 대나무 칼트 등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상설전시실은 오후 8시까지 연장 개관한다.

중외공원 일대에서는 오후 5시부터 9시30분까지 '썸머 아트피크닉'이 펼쳐진다. 미술관 옆 책방, 작가 아틀리에, 아트 놀이터, 피크닉 COOK, 아트 살롱, 아트피크닉 콘서트, 시네마 아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다. 문의 062-613-534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전남 우리가곡 부르기 '그 바다에 서서'

### 8일 강숙자오페라라인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욱) 7월 행사가 8일 오후 7시 광주시 임동 강숙자오페라라인 연주실에서 열린다.

함께 배우는 노래는 조용석 시인이 군대에서 쓴 시에 '얼굴'의 신귀복씨가 멜로디를 부친 '그 바다에 서서'다.

꿈나무 연주로 정운서 (양지초 4)양이 '꿈꾸지 않으면'을 부르며 최원희 김희숙(남이 오시는지) 이찬희(세월), 남신(농소화), 신영근(내 마음 그 깊은 곳에), 김종래(그대는 내 사랑의 시), 박진영(내 맘의 강물) 씨가 무대에 오른다.

찬조 출연하는 로타스중창단이 '아름다



테너 김정규

운 인연'과 '보고 싶은 얼굴'을 부르며 테너 김정규씨를 초청 '청산에 살리라' 등을 청해 듣는다. 또 '산바람 강바람', '바닷가에 서', '옛 동산에 올라', '사공의 노래', '가고파',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등 다 함께 부르며 시낭송가 김세린 씨가 성찬경 시 '추사의 글씨에게'를 낭송한다.

8월 행사는 신다. 1만원을 내면 차와 간단한 먹을 거리를 제공한다. cafe.daum.net/gjkrong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

### 광주일보 지사·지국 안내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4년  
**광주일보**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행구독 220-0550

광주시내 (062)	전남 (061) · 전북 (063)
<b>북구</b> 동광 264-2012 문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안 222-8171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오봉 522-7752 우산 512-8116 중남 654-2985 남광 222-9440 <b>동구</b> 동남 222-9054 동동 225-6001 중동 222-1896 중장 222-8171 <b>남구</b> 남부 652-0175 북부 651-1833 북동 675-5530 송하 675-6605 진월 671-7276 <b>서구</b> 광천 382-5788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운천 376-7153 치평 376-6511 중앙 803-0311 화정 369-0583 월곡 941-9174 <b>광산구</b> 침단 973-2900 하남 959-1500 광산 944-0444	<b>동부권</b> 고흥군 842-2121 곡성군 362-8111 구례군 782-4696 광양시 792-8111 보성군 852-9646 순천시 746-8111 여수시 692-0997 <b>중부권</b> 나주시 335-5501 강진군 434-6830 담양군 383-8116 영암군 471-1717 장성군 394-0400 장흥군 863-8822 화순군 374-4423 <b>서부권</b> 목포시 276-9200 무안군 452-8535 신안군 278-8111 영광군 351-1004 완도군 554-6677 진도군 543-0100 함평군 324-8111 해남군 537-6767 <b>전북권</b> 군산시 467-2500 정읍시 531-5544 순창군 652-1920 남원시 626-1601 고창군 010-2815-2267 부안군 582-8118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 하за없이 20년은 너뿐이기는

#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턴: 방수시공, 방수시공, 방수시공, 방수시공, 방수시공, 방수시공, 방수시공, 방수시공, 방수시공, 방수시공

홈페이지 방문하시면이메일주소, 카탈로그, 견적서, 견적서, 견적서, 견적서, 견적서, 견적서, 견적서, 견적서, 견적서

색상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